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 —

## 박준희 사회복지사

**1** 우선 칭찬텔레이 사회복지사로 선정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여기에 선정된 사람이면 누구든 하는 말이겠지만 저를 추천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럴만한 사람이나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자리를 빌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 사회복지사무소 추진단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알고 계시다시피 '04년 7월1일부터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추진단은 시범사업에 대

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진행, 시범지역모니터링을 통한 기능개선,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시범사업모니터링과 공청회 및 워크샵 추진, 홈페이지 관리,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넘어섰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복지사무소 시행에 대한 평가가 언론에 의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에 있어 가장 큰 효과는 어떤 것 일까요?

❖ 사회복지사무소가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입니다. IMF이후 복

지예산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제자리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행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원화된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여 전문가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소이후 8개월동안의 효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면 첫째,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진 것으로 기존의 다단계 결재라인을 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상담의 내실화로 읍·면·동에서 기존업무 처리에 바빠서 형식적인 상담을 실시해왔으나 조사상담팀을 통해 밀도있는 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셋째로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기존체계에서는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담당자의 역량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서비스연계팀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사후관리와 지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인력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그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신 동기와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일찍 진로를 고민한 친구들은 복지관이나 시설 등으로 갔지만 마땅히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임용 첫해에 있었던 장애인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에 대한 일로 당시 본인들과 부모가 동의를 해서 추진하던중에 결혼식 삼일전에 친한 장애인 한분이 '장애인으로서 남들에게 시선을 받는 것도 힘든데 합동결혼식까지 하느'면서 일방적으로 합동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수화를 못했던 터라 노트 한권 분량의 필담을 나누고, 추운 겨울에 오

토바이를 타고다니며(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었음) 주위 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겨우 예정대로 행사를 실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진행 중인 일이라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 5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지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관계설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이니 민간이니 하는 구분보다는 전체 사회복지계의 영역확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확보입니다. 현 제도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의 학생모집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도록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강제하는 법제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6 다음 칭찬사회복지사를 추천해 주세요.

❖ 죽전재활원의 직업훈련교사로 있는 박기범 사회복지사를 추천합니다. 이분은 모든 일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대학 시절 학회활동에서부터 성실함이 돋보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 바로 미인가 시설에서 근무하며 고생을 자처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에서의 활동과 역량을 보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